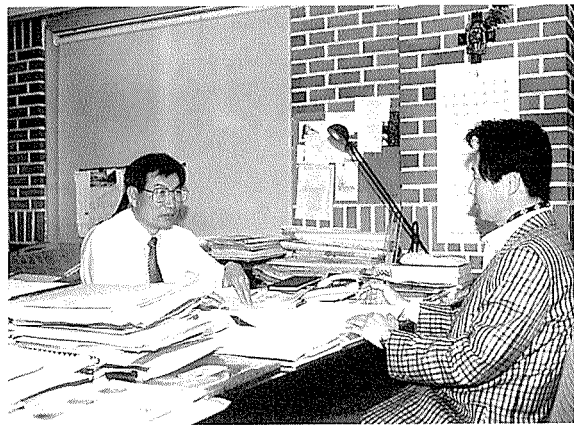


**도면보다 좋은 건축**

**The Architecture : Outdo It's Drawing**

건축사 / 김무권(현대건축)  
 대담자 / 현택수(경일대 건축공학과 교수)  
 Kim Moo-Kwon & Hyun Taek-Soo  
 일시 / 99. 4. 13.(화) 18 : 00  
 장소 / 현대건축



대담광경(왼쪽: 김무권, 오른쪽: 현택수)

현택수 \_\_\_\_\_ 1999년 연초까지 건축가협회 대구지회장을 역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면서 어려운 시기에 작품활동으로 건축적 업적을 더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계명문화대학 복지관 및 예술관 설계에 참여하신 배경과 경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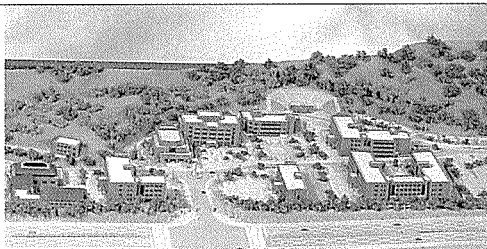
김무권 \_\_\_\_\_ 계명문화대학은 이 지역에서 드물게 전문대학으로서 30년 이상 교육전통과 학사행정, 시설 규모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대명동 캠퍼스의 시설 용량이 한계에 달해 성서로 캠퍼스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계명대학 캠퍼스 설계에 관여하다보니 같은 학교법인인 계명대학부지에서 일부 할애를 받아 조성하게 된 계명문화대학 설계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 자신도 20여년 전 이 학교 초기에 건축과 학생들에게 강의한 인연이 있습니다.

현택수 \_\_\_\_\_ 대학시설이 상아탑적 견고성으로부터 일탈하여 사회로의 확대 의지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랜 동안 건축설계교육을 담당하시고 계시는데 교육적 경륜에서 비롯한 남다른 의욕과 설계의도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만 ...

김무권 \_\_\_\_\_ 개인적으로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체가 자기발전에 큰 도움이 되며 현실생활의 피로함과 나태함에서 그래도 책을 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젊음을 통한 의욕을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여러 교수님과의 만남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것도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대학 캠퍼스에 대해서는 아카데미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사회로 열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울타리진 폐쇄성보다는 도시와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시설의 일원이 되어야겠지요. 마침 계명문화대학은 현실적 적용성을 높이는 학문성과 기술성을 추구하고 있고, 입지성도 주거지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점을 설계이념으로 적극화하려 했습니다.

현택수 \_\_\_\_\_ 새 캠퍼스의 초기 마스터 플랜과 현재의 조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개념의 전환이 있었는지 아니면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는지요?

김무권 \_\_\_\_\_ 초기 마스터플랜은 5년전인 1994년에 작성되어 1차로 예술관부터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실시설계시 일부 교수님들의 캠퍼스 이전 반대이견 때문에 할 수 없이 건물의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정해 있지 않은 연구강의동을 먼저 착공하게 되었고, 연구동이 우선으로 들어서면서 도



계명문화대학 마스터플랜 초기안



계명문화대학 마스터플랜 최종안

서관 건물위치를 차지하다보니 도서관이 본관을 밀어내게 되고, 본관은 학생회관으로 사용하기로 한 기존 R.O.T.C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학생회관은 이번에 준공된 학생복지관과 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의 학교부지 조정에서 초기 계획안의 운동장 부지 중 절반 가까이 잘리게 되어 운동장 자리에 3호관이 계획되고, 운동장은 캠퍼스 북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정황에 따른 변환이었습니다. 처음엔 언짢기도 했습니다만 건축은 제한과 규제의 상황을, 혹은 변화된 여건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이므로 새로이 발생한 요구조건이라 생각하고 피드백한 셈으로 치고 있습니다. 또 그 나름의 장점을 살리려 했지요.

현택수 \_\_\_\_\_ 복지관을 대로변에 면하게 배치시킨 점에서는 말씀하신 지역사회의 개방성외에도 여러 가지 계획적 배려가 있었겠습니다.

김무권 \_\_\_\_\_ 부지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캠퍼스 대지면적이 5만 9천평 정도로 넓지 않은 처지에 그나마 절반 가량이 건물을 배치할 수 없는 급경사로 보존해야 할 수목지이며, 나머지 부분은 습지인 깊은 구릉지와 저수지로 되어 있고 대지의 동측은 대구의 4차 순화선인 50m 도로와 길게 접하여 있으며, 그 도로 동측은 성서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명대학의 폐수처리장과 학군단 건물이 캠퍼스 계획에 상당한 장애가 되어 건물을 도로에서 좀 더 이격하여 배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주위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소음을 차단하면서 학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복지관을 가로변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택수 \_\_\_\_\_ 복지관 주계단실 쪽이 건물규모에 비하여 넓은 것은 복지관 자체의 동선 처리뿐만 아니라 예술관의 통로 역할을 겸하는 까닭이겠지요. 이 경우 계명대학 복지관설계보다도 넓어졌는데 사후 검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김무권 \_\_\_\_\_ 맞습니다. 계명대학 복지관을 하면서는 그냥 막연히 뒤쪽에서의 통행을 감안하는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통행량이 의외로 많아서, 이번 계명문화대학의 경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넓게 해서 완전히 한스판(7.2m)의 모듈로 처리하면서 마감자재도 외부공간의 마감재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현택수 \_\_\_\_\_ 복지관 엔트런스로서의 출입성과 예술관 게이트로서의 전이성 때문에 공간을 외부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공간의 외부화 기법으로 엔트런스홀에 바로 출입문을 두지 않고 건축물 내부통로에다 출입문을 두고, 외부마감재료를 그대로 내부로 끌어들이어 연계시키는 방법을 취했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한가지 특이한 점은 가로쪽으로 출입회랑을 내지 않고, 1층에서는 뒷부분(예술동)에 빈 아케이드로 열주랑을 내고 2층에 와서야 실내부분 편복도를 가로쪽으로 두었는데, 어떤 계획에서 인지요?

김무권 \_\_\_\_\_ 이 건물은 보기에는 일자형 평면의 단순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오면 공간자체는 완전히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술관의 중정을 바라본다든지, 아케이드형, 피로티형으로 학생들의 휴식공간을 형성하면서 후면에서 편의 공간으로 출입하는 차량역할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는 도로의 소음문제가 대두되어서 도로 쪽으로 편복도를 내고 각실은 오히려 캠퍼스쪽으로 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이 단순한 평면내에서 정반대의 동선이 복합되도록 고려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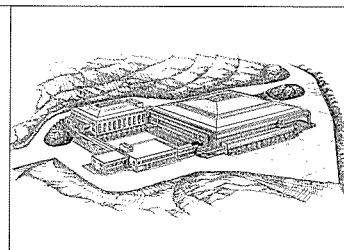
현택수 \_\_\_\_\_ 전체부지 형편상 폭이 얇은 데지라서 건물이 가로변으로 길게 면하게 되는 성격과 소음차단이라는 환경적인 측면, 이 두가지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복도측 면에서 유리블록도 사용하였는데 유리블록이 처음성뿐만 아니라 길게 나타난 입면에서 개구부형태의 변화성을 가해주는 요소로 채용된 것 같습니다.



경일대학교 도서관



경일대학교 본관



계명대학교 체육관 조감도

김무권 \_\_\_\_\_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소음은 차단되고 일부 환기구멍만 두어 광선은 들어오도록 하는 한편 특히 도로쪽에서 보이는 파사드의 변화효과를 생각했습니다.

현택수 \_\_\_\_\_ 복지관 1층의 기능은 학생복지관이지만 지역공공시설로서의 임대성격도 보입니다.

김무권 \_\_\_\_\_ 원래는 가운데 게이트를 중심으로 한쪽은 금융기관, 한쪽은 판매장,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m의 넓은 도로이면서 도로의 반대편에도 상권이 형성되어있지 않으므로 특히 예술관쪽의 학생들을 위한 매장을 외부공간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매장은 유닛트, 즉 단위별로 나누어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모든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비체계를 할당서비스 시스템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현택수 \_\_\_\_\_ 예술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물이 앉은 부지는 원래 상당한 경사지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법으로 구상하신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무권 \_\_\_\_\_ 예술관 부지의 레벨차가 6.3m에 달하고, 요구되는 공간규모는 3천 8백평으로 활애된 부지에 비하여 큰 용적이므로  $\pi$ 자형으로 건물을 꺾다 보니 경사를 극복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정지하여 외내부공간에 1층씩 레벨차를 두고, 지하층화 되는 공간의 전면쪽은 선근기둥을 적극 활용하고 후면쪽은 드라이에리어와 화단으로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예술관 전후면에서 2개 층의 레벨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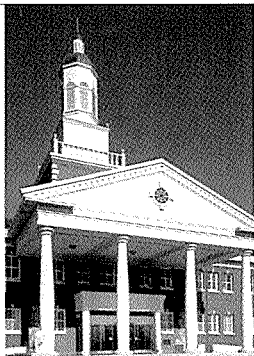
현택수 \_\_\_\_\_ 복지관과 예술관의 상호관계성이 블록플래네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요? 그리고 이번 작품의 경우 외부공간계획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계획기법과 내부공간과의 관계성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무권 \_\_\_\_\_ 도로변에 일자로 복지관을 배치함으로써  $\pi$ 자형의 예술관 가운데 부분이 자연적으로 전통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넓은 중정 분위기를 연출하므로 이 공간에 학생들의 휴식과 실습작품들의 옥외 전시가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학건축설계에서 건물만 설계하고 외부공간은 예산문제로 적당히 식재계획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이번 경우 경사지에 배치하다 보니 건축계획과 외부공간계획이 개별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북측의 주출입구 쪽에는 캠퍼스 중심과 접근이 용이하게 개방적 공간으로 계획하였고, 예술동으로 에워싸인 공간은 동측의 복지관과 더불어  $\pi$ 자형의 정적공간으로 연출하였고, 남측 부분의 선근과 연계된 외부공간은 실습시 물품반입과 옥외작업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각각의 외부공간에 특성을 부여하고 내부공간의 기능에 순응토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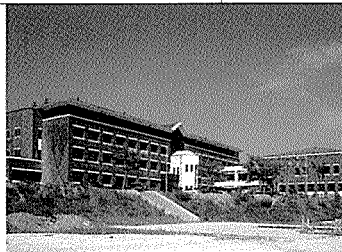
현택수 \_\_\_\_\_ 예술관에서 평면적 해결은 주로 공간성격으로 분할한 경우가 됩니까?

김무권 \_\_\_\_\_ 그렇습니다. 북쪽이 연구강의동으로 정적이면서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고, 남쪽 공간은 실험실습동으로 소음도 나고 물도 사용하며 냄새도 나는 공간이어서 학교측에서는 원래 두 개 동으로 건축하여 브리지로 연결할 것을 원했지만 대지도 협소하고 해서 한 건물에서 두 공간을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기능의 중간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물품, 실험기기, 재료반입 등의 동선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강의동으로의 소음은 복지관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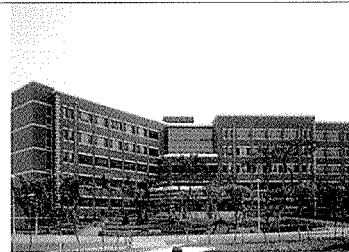
현택수 \_\_\_\_\_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실험실습과 연구강의동 부분을 자연스럽게 매개영역설정을 통해서 구분한 해법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내부의 성격들을 형태 표현에서도 그대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은 기능적으로 명쾌한 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합리성이 신중성과 맞물릴 때 재미나 멋을 엮어내는 데는 제약의 틀이 될 수



계명대학교 본관



계명대학교 학생회관



계명문화대학 강의동

도 있겠는데, 표현성의 절제는 선생님의 성향입니까? 아니면 우스개소리로 길가집을 짓지말라는 이야기처럼, 학교도 공공 건물이니까, 여기 저기서의 강한 참성 때문입니까?

김무권\_\_\_\_\_저의 작품이 기능적인 면에 너무 치우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능적으로 딱짜인 평면보다 어리숙한 공간, 두리번거리다가 실 수 있는 곳, 전혀 허실이 없는 구형체보다 조금은 낭비가 있는 듯 빼놓아진 공간,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형태를 구성하고도 싶습니다. 또 초기에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이런 공공의 건물은 설계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공간이나 형태의 표현을 자제하게 되지요. 원래는 형태의 변화도 있고, 친숙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6개의 학과가 들어오으로써 교수님들이 자기 연구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과정에서 공간형태가 결정되어갔으며, 지붕도 바꾸어보았으면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오늘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넥타이를 맨 모습이고, 현 교수님은 계절에 맞는 개나리색의 셔츠에 머플러를 받쳐입으니 정말 멋있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항상 정장차림보다는 이따금 케주얼 복장의 편안함과 수수함, 수도자와 같이 지나치게 금욕적인 생활보다는 술 한잔에 실수도 가끔하고 흥도 낼 수 있는 인간적인 정감을 자아내는 건축을 하고 싶지요.

현택수\_\_\_\_\_제가 드린 말씀은 선생님의 경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에 충실한 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허허실실 가운데 노니는 멋이 각박한 현실을 벗어나게 하고, 그 자체가 수용의 쪽으로 작용하여 퍼지시스템 같이 범위를 가짐으로써 적용성을 크게 갖는 여유있으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실제로 건축주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달수가 있는 경우에, 이습우화의 '팔러기는 당나귀' 처럼 이도저도 아닌 오류를 범하기 쉽지만, 선생님은 건축주나 사용자 뜻을 충실히 반영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김무권\_\_\_\_\_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프라이드라든지 건축외적인 핑계보다는 저 자신도 문제가 있는게, 건축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건축주를 설득하는 것인데, 시간과 노력에서 쉬운 쪽을 택하고, 한단계 더 발전시키면 될 텐데, 좋을 텐데 하면서도 아쉬움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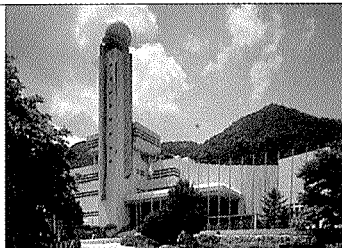
현택수\_\_\_\_\_방금 솔직하게 토로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면이 부럽습니다. 경륜 가운데서도 일일이 반성하고 새로우려는 정신이 오히려 저보다 젊은 것 같습니다. 덧붙여 질문하면 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형태표현이 그를 따르는 소위 근대 건축의 기능적 성향을 보이게 됩니까?

김무권\_\_\_\_\_그렇습니다. 사실 이 예술관 건물은 계명문화대학 소속인데, 그래도 옆의 계명대학캠퍼스 건물보다는 형태표현이 자유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계명대학의 일을 하면서 프로토타입 성향의 강요도 많이 받았지만 조금은 그런 원형에서 탈피를 하였고, 한편으로는 기능에 형태가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외부마감이 붉은 벽돌로 한정되어 하이테크 같은 표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택수\_\_\_\_\_형태표현과 관련하여는 유행성에 민감하지 않고 오랜 생명력을 지니는 조형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오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입면의 이미지네이션은 어떤 점에 유의하셨는지요?

김무권\_\_\_\_\_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자연스레 형태도 절제 표현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건물은 패션이 아니며 지나치게 뷔페식 건축언어를 찍어붙인 혼란스러운 형태도 곤란하겠습다. 보면 볼수록 은은한 감동을 주는 좋은 건축물이 되어야지 알곳은 건축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현택수\_\_\_\_\_답변 중에서 은은한 감동을 주



낙동강 승전기념관



대구가톨릭치매센터



대명빌라

는 좋은 건축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에 동감입니다. 표피적이고 장식적인 표현성에 치중하는 경우에는 유행에 쫓기 마련이어서 이 결과 식상하게 되고 생명력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건축이 시대성을 지녀야겠지만 시대성에 너무 민감하게 되면 오히려 건축의 장수성에는 역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에서 형태표현의 점잖음이라든가 실증나지않는 텍스처의 채택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무권 \_\_\_\_\_ 글썄요, 그런 면으로 주위의 말을 많이 들곤 하면서도 제자신은 불만도 있는 편입니다. 근원은 문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같이 고전에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접하면 언제나 좋은 것처럼 형태도 이런 고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택수 \_\_\_\_\_ 어떤 가치의 근원성에 대한 추구와 그런 분별에서부터 나오면 생명이 길어진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표현에서 작품의 가치성은 우리 건축계 전체도 새겨야 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25년 상같이 사후에 상을 주는, 오랜 경과 후 인정을 받는다면 참작품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유념할 필요를 느낍니다. 표현 재료로는 붉은 벽돌을 즐겨 사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김무권 \_\_\_\_\_ 종교건축과 학교건축을 비교적 많이 다루다보니 붉은 벽돌을 주로 쓰는 경향입니다. 저는 건축자재가 가능하면 자연적인 재료가기를 원합니다. 구조적, 경제적인 면에서 자연 재료들은 그대로 사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흙을 불로 구워 자연적인 질감과 색상을 낸 벽돌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건물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고, 묘사이고령토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저의 작업실 실내에도 붉은 벽돌로 마감하니 겨울에 건조한 날씨에도 가슴기가 필요없고 여름 장마날씨에도 종이가 녹지않을 정도로 습도가 자동조절되는 기능을 하지요.

현택수 \_\_\_\_\_ 붉은 벽돌사용 경험을 축적한 가운데도 시저펠리나 랄프존슨의 작품 등을 연구하시는데, 펠리 보다는 훨씬 한국적으로 단아한 선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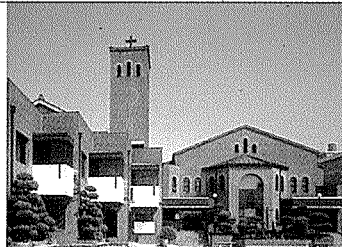
김무권 \_\_\_\_\_ 시저펠리의 작품자체보다는 붉은 벽돌로 표현된 건축, 재료의 사용기법 등에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붉은 벽돌의 디테일이라든지 형태에 대한 것은 책자라든지 여행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발전이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테크 건축을 자연 속에서 메마르다고 하는데 벽돌을 사용함으로써 메마름을 극복하고 따뜻한 건물로 만드는 그런 개념도 포함됩니다. 다행스럽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붉은 벽돌에 그냥 돌뭉치 돌린 다든지, 미장을 한다든지 했는데, 최근에는 여러 색상의 벽돌이 나오다보니까 다양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현택수 \_\_\_\_\_ 이제 심문같은 질문에서 제 본심을 토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도면보다 좋은 실물이 있기 어려운데 선생님의 경우는 실제 작품이 도면보다 훌륭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비법이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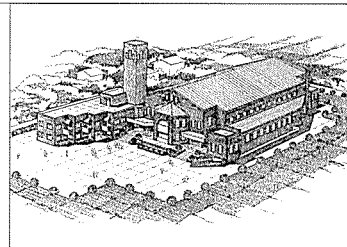
김무권 \_\_\_\_\_ 좋은 설계는 도면보다는 실제 건물이 더 좋아하지요. 부실공사를 이유로 대형건물은 설계자와 감리가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딱한 일입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시방서를 중점으로 도면을 그리고 샵드로잉을 하면서 감리를 실시하는데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샵드로잉의 능력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계된 작품을 지식 키우듯, 농작물 돌보듯 정성과 애착으로 감리과정을 꾸러가야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와 같이 일을 해본 현장소장들은 준공후에도 안부를 묻고 항상 저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하는 과정에서 시공자에게 지시하고 군림하기보다는 내작품을 표현해주는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함으로써 의기투합하여 제작품의 구현을 위해 힘써주는 결과가 되지요.



현대건축 사옥



신암성당



신암성당 조감도

현택수 \_\_\_\_\_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건축가 스스로 알뜰살뜰 살피는 정성이 필요하겠지만, 시공기술자들을 그냥 기술자로 대하지 않고, 작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주는 나의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시는군요.

김무권 \_\_\_\_\_ 그렇습니다. 아마 현장소장 대부분이 건설회사에서 10년이상 된 사람들일 터인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저는 내작품을 잘 만들어 달라는 욕심에서 인데 그렇게까지 호감을 가지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현택수 \_\_\_\_\_ 진정한 비결인데 오늘 밝히신 것 같습니다. 설계와 감리과정을 통하여 작품의 실현성을 높여 가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도면보다 실물이 좋은 건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걸로 이해됩니다. 한편 페이빙, 저도 평소에 우리나라 건축에서 가장 미흡하고 아쉬운 점 하나로 외부공간 페이빙의 단조로움을 드는데, 복지관과 예술관이 에워싼 중정부분과 건물동 주변에서 바닥 포장의 세심한 배려와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이 시도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한 경우입니까?

김무권 \_\_\_\_\_ 사실은 이 작업을 제가 계명대학교의 중앙도서관, 본관, 학생회관 앞의 넓은 외부 코어플라자에다 5년전에 시도했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바닥에 무슨 벽돌을 까느냐고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트로킹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꼭 하고 싶어서 설계당시에 허락을 받았으며, 레벨 차이가 심하다보니 이렇게 조성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도 이용하여 전체 공사비에 일괄 포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페이빙의 패턴은 설계과정에서 가미했고, 처음엔 간결하게 바닥에 보도벽돌을 깔려고 마음먹었지만, 작년부터 보도벽돌이 다양하게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저로서도 큰 행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택수 \_\_\_\_\_ 일부러 호주도 다녀오시고 일본의 경우도 많이 관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페이빙의 문제가 포장자체로 끝나지 않고 외부공간의 분위기나 성격을 규명해 줌으로써, 건축의 외부와 내부가 이원화의 성격이 아니고 상호 교통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지않았나 합니다.

김무권 \_\_\_\_\_ 에,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신시가지는 대부분 보도벽돌로 포장되어 있었고, 페이빙끝 화단 쪽의 턱은 돌을 두껍고 넓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친하게 식물과 풀과 접할 수 있는 의자역할로 처리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신시가지 경우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늦은 것 같습니다.

현택수 \_\_\_\_\_ 방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잊혀 지는데, 화단 테두리의 낮은 경계벽, 폭넓은 두껍돌 등은 편안한 인체치수로 계획된 것 같고, 안전을 위해서 드라이에리어 위에 철물망덮개를 꼭 달곤 하시는데, 그런 면들이 세밀한 배려의 설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선홍통을 벽속에 감추어 벽면과 일체화 시킨다든가...

김무권 \_\_\_\_\_ 건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형태, 구상 등도 중요하지만 저는 디테일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홍통같은 경우 노출시키면 동판이 약하므로 학생들이 벽에 기대어서 다치고 찌그러뜨리게 됩니다. 또 환기를 위해서, 채광을 위해서 만든 드라이에리어는 깊이 마련입니다.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를 가정해 보십시오. 아찔합니다. 그래서 시공업자는 저의 설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들 합니다.

현택수 \_\_\_\_\_ 그러니까 대강 지나침없는, 끝까지 면밀한 계획성이 내포되었다는 반증이겠지요. 방금하신 말씀이 일반적으로 건축을 평할 때 작품성 쪽에서는 배제되는



아주빌딩



영남대학교 제2도서관



월성성당

경우가 많은데, 건축작품성은 다른 장르 예술과는 달리 퍼스날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실제사용의 부분들이 작품성의 평가요소로 크게 인정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무권 \_\_\_\_\_ 얼마전에 수녀원엘 갔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원 계통 건축에서는 냉방을 잘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주 좁고 긴창문을 보고서, "이 창문이 잘못되었다" 하니 수녀님이 놀라면서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인 지라 여름철 덥고 냄새가 나지만 그런가 보았습니다."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뉴트럴 존 아래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실링의 80센티정도에서 공기가 나가는 환기의 원리를 무시하고, 위로는 모든 창을 고정시키고 아래쪽에만 작은 프로젝트 창을 내어 놓아 바람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벽돌의 백화현상의 경우도 제 설계에서는 벽돌자체의 습기 호흡차원에서 끝내도록 합니다. 즉 골조나 콘크리트 벽체에는 철저히 방수처리하여 그 영향성을 최대한 방지합니다.

현택수 \_\_\_\_\_ 어떤 분들은 과연 기본성 자체가 무엇이나 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자연현상이라든가, 기후라든가, 혹은 인간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걸 기본으로 보아야겠지요. 우리 건축가들의 책무의 하나로 항상 부르짖는 것이 인간환경의 고양이라는 측면인데, 인간환경을 오히려 인내하도록 만드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물음 중에 못다하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무권 \_\_\_\_\_ 기능적인 문제는 김인호 선생님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학 2학년때부터 그 분하고 생활하면서 자연하기전까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능적 측면을 너무 강조해서 초기에는 반대급부로 자유스러운 작품도 많이 하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것은 기능적으로 좋으면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설계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보기에 아름다워서 좋은, 편리하면서 감동을 주는 공간을 연출하는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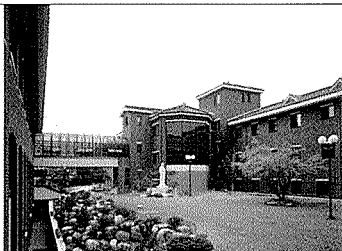
현택수 \_\_\_\_\_ 이번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감사할 일이나 아쉬운 점을 꼽으신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김무권 \_\_\_\_\_ 신뢰를 갖고 저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겨주신 학교당국과 기획단계에서부터 조언해 주신 건축과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측 감독관으로서 유능하게 업무를 수행하신 유종호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학교설계보다 비교적 저의 안이 잘 반영된 일이 다행스러우나, 처음의 시공회사가 I.M.F로 도산하여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마감공사시 여유없이 마무리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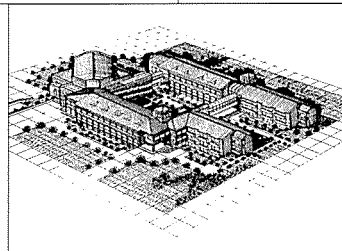
현택수 \_\_\_\_\_ 앞으로의 포부와 건축계를 위한 말씀으로 맺어주시지요.

김무권 \_\_\_\_\_ I.M.F로 특히 건축계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업기술의 일부인 건설적 측면이 부각되고 경제개발 우선 논리에 편승하여 도시와 건축이 비인간화되어 왔습니다. 이제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건축이 시대문화의 총체로서 본연의 위상정립을 해야겠고, 우리 자신도 자긍심을 가지고 적은 일 하나하나에도 애착을 가지고 임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앞으로 포부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사랑으로 건축하는 일이며, 또 젊은 건축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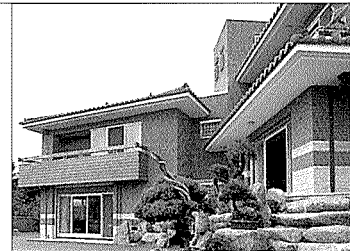
현택수 \_\_\_\_\_ 장시간 귀중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성심시녀회 본원 수녀원



예수 성심시녀회 본원 수녀원 조감도



월금에원